

전남도, 2조9천억 투입 도민 건강 증진·약자 복지 확대

년 6회 복지사각지대 발굴·24시간 위기가구콜센터 운영 등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0만7천가구 개별급여 등

전남도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경로당, 시설에 260억원의 예비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 한 해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으로 ▲충족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안전망 강화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도민 건강증진과 감염병 위기 대응 ▲식·의약품 안전한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 2조9711억원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충족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을 현실화해 10만7000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맞춤형 개별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6만

7000명에게 진찰·검사, 약제·치료비 등을 지원,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는 긴급복지를 지원해 가족해체를 예방한다.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연 6회 운영, 24시간 위기가구콜센터(120번) 운영, 읍면동 복지전달 체계를 활용한 복지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고독사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권기금 10억원을 더해 87억원을 지원한다.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

상 저소득 노인 37만명에게 기초연금 1조3781억원을 지원하고, 유형별로 다양한 경력에 맞춰 5만 7000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9200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극비로 189억원을 지원하며 입식 테이블을 88개소에 신규로 설치한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 맞춤형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에 스마트 기기(반려로봇) 보급 등으로 어르신 안전망을 강화한다.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의료시설 276개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한다. 장애인 연금·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대상자를 5만2000명까지 확대한다. 부족분은 도비 109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특화교육, 건강 증진, 양육지원, 여가 문화 등 4개 분야에 64억원을 지원한다. 도민 건강 증진과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병원선도 새롭게 건조해 의료 취약지 주민 편의를 돕는다. 찾아가는 건강지킴이서비스 2대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마음안심서비스도 3대로 확대한다. 치매 안심마을은 115개소로 늘리고,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재활 등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환경도 조성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성역~챔스필드 급행버스 도입 검토

도시철도 소외지역...광주시, 돌고개역→농성역 경유 변경

광주시가 도시철도 소외지역인 광주 농성역~챔피언스필드에 트램 대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 중 광주 노선을 정정 고시했다. 애초 노선은 돌고개역을 경유했으나 농성역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1년 11월 발표한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광주권 1개 노선의 도심 BRT를 반영했다. 남구 백운광장~북구 희망병원 10.3km에 361억원을 들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T가 개통하면 시내버스 2대를 붙인 전기 골절버스 등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소외 지역 교통편의 강화, 버스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해 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트램이 검토됐던 농성역~챔피언스필드 구간이 그대로 포함돼 BRT가 트램의 대안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사회적 합의 필요성, 장단점 분석 등을 이유로 올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트램 도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BRT, 트램, 도시철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예상·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제한급수 '5월 초'로 연장

절수운동에 285만㎥ 절감...비로 동북댐에 359만㎥ 물 유입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광주의 제한급수 예정 시기가 5월 초로 늦춰졌다. 광주시는 "시민 주요 상수원인 동북댐 고갈 예상 시점이 애초 3월 말, 5월 중순에서 6월 초로 연장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가 더 내리지 않는다면 3월 중 제한급수 시행 여부 논의를 거쳐 5월 초 시행될 수도 있다. 올해 1월 들어 평년보다 많은 34mm 강수로 동북댐에 359만㎥ 물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취수량 17만㎥를 적용하면 21일 사용량에 해당한다. 시민 절수 운동으로 전년 대비 수도물 사용량은 지난해 11월 4.7%, 12월 8.1%, 이달 6.7%가 줄어 285만㎥를 절감했다. 광주시는 상수도 관망 수압조절, 누수 관리, 주암댐 용수 추가 공급 등으로 동북댐 수량을 확보했

다. 영산강 하천수도 다음 달 말부터 하루 2만, 4월 말에는 5만가량 정수장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동북댐 상류 관정 개발을 통해서도 4월 말부터는 하루 1만~2만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가뭄이 봄까지 이어질 수 있는만큼 제한급수를 피하려면 지속적인 물 절약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민 하루 물 사용량은 2021년 기준 304.7L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325.7L) 다음으로 많았다. 이정삼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5월과 같은 500년 빈도 가뭄이 올봄에도 발생한다면 5월 초 제한급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집중 호우로 댐 수위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수운동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양 제2 LNG 터미널 증설공사 착공식이 지난 31일 오후 광양 국가산단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기업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착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남도제공>

광양에 9000억 규모 제2 LNG 터미널 착공

2025년까지 20만kl용 저장탱크 2기 신설...안정적 공급기 확보

광양국가산단에서 9000억원 규모의 광양 제2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착공식이 지난 31일 개최됐다. 착공식에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주) 부회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김영록 전남지사, 포스코그룹 임직원 및 고객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 제2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은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주)의 합작법인인 엔이에이치(주)가 건설한다. 오는 2025년까지 9300억원을 투자해 ㈜포스코가 제공한 광양국가산단(동호안) 부지에 20만kl용 저장탱크 2기를 갖출 예정이다. 20

만kl 용량의 액화천연가스는 전남 전체 77만 가구가 약 3.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2025년까지 터미널 구축 기간 하루 평균 600여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발전 확대 및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액화천연가스 공급기지의 안정적 확보로 신에너지 허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는 포스코(제철소) 공정 및 자가 발전 등에 사용하게 된다. 최정우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을 비롯

한 전남지역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액화천연가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지속 발전하기 위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제2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증설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합병으로 완성된 액화천연가스 가치사슬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포스코 그룹 대도약의 날개가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포스코 그룹이 철강 산업을 넘어 액화천연가스,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결판 판매 중

이방인

이 기원 옮김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